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박재산¹ · 이미순² · 문재우²

한국보건산업진흥원¹,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²

Effect of Functional Deficiency in Family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nclination of Adolescents

Jae San Park¹ · Mi Soon Lee² · Jae Woo Moon²

¹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functional deficiency of Family and self-esteem, depression, suicidal inclination of adolescents.

Methods: The data in this study came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N=3,449) for 2005~2007.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presented in the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carried out by using AMOS 7.0. And al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WIN 12.0.

Results: The main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function made a positive impac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Second, the severe functional deficiency in family appear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uicidal inclination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Third, the higher the adolescents' self-esteem, the lowe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urth, the more severe the depression, the higher occurrence of suicidal inclination.

Conclusion: In conclusion, functional deficiency in adolescents' family impacted negatively on self-esteem, and this contributed to increased depression and anxiety, and to suicidal inclination finally.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strength of family function, the closeness with parents, forming a stable relationship and strength of the emotional bond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form self-esteem and reduce depression and suicidal inclination.

Key Words: Functional deficiency, Self-esteem, Depression, Suicidal inclination

서론

1. 연구배경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명공동체로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성장 발달의 근원이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가 가족구조에 크게 작용함으로써 가정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원간의 기능 및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 및 친척의 유대가 약화되었으며, 질병이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가정해체 및 결손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은 2003년 166.6천 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통계청(2011)이

Corresponding author: Jae Woo Moon,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604-5 Dangjung-dong, Gunpo 435-742, Korea, Tel: 82-31-450-5248, Fax: 82-10-4482-1691, E-mail: moon1229@hansei.ac.kr

투고일 2011년 12월 1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4일

발표한 2010년 이혼통계결과를 보면 2010년 이혼건수는 116.9천 건으로 1970년 11.6천 건에 비해 10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6만 2천 9백 건으로 전체 이혼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1998년 이후 갈등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살률, 이혼율, 출산율 등 가족영역 지수에서 24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가족 또는 가정 문제가 한국사회의 통합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와 해체는 청소년을 가족이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및 사회에서 다양한 위기와 문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혼, 빈곤, 소년소녀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정이 구조적·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가정의 해체는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켜, 가정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는데, 부나 모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결손으로 대부분의 가정은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사문제,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및 심리적 역기능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성혜와 한유진, 1995). 특히 가정의 결손으로 인해 청소년은 그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 친구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및 자아존중감·인지능력·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모두 함께 사는 가정의 청소년과 비교할 때 결손가정 출신 청소년은 범죄로 구속되는 비율이 2배가량 높고, 정서 또는 행동 장애를 겪는 비율도 2배로 높으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비율도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중간에 자퇴하는 비율도 33%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30세 이전에 감옥에 가는 비율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세계일보, 2010. 6. 21).

한편으로 양친부모가 있어 구조적 결손이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결손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의 기능적 결손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가정의 중요성 및 가정결손의 정도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아개념 형성과 정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된다. 특히 자아개념의 중요한 하

위영역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발달과 성숙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 또한 멀리할 수 없다.

가정의 구조적 결손 못지않게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족간의 불화, 강압적인 자녀교육방식, 대화부족 등과 같은 가정의 기능적 결손 역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동안 결손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결손가정의 특성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창환과 강민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연구(김광수와 김영진, 2006) 등과 같이 일부 수행되었으나, 자아존중감, 우울(이에재, 2000), 자살생각 등 사회·심리적 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기능 및 유대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손광민 등, 2010). 또한 개인 가치관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 해체 및 결손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박민주, 2004), 부모가 모두 있어 구조적 결손이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결손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기능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어떤 구조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가족의 기능적 결손(Functional Deficiency)에 대한 정의

전통적으로 가족은 성이 다른 두 사람의 성인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고 상호간에 동등한 목표를 지니는 사회적 체계로 정의된다. 결손가정은 구

조직 결손가정과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결손가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정으로, 가정의 기본적 구성원인 부모가 사망,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한쪽이 부재하는 가정을 말하며, 기능적 결손가정은 양친이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신체적 측면에서의 자녀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능적 결손가정은 가족 형태는 정상적이지만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가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보장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조홍식 등, 1997).

이러한 측면에서 기능적 결손가정은 부모의 부재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외형적으로는 부모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인 양육이 결손되어 있다면 이는 기능적 결손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모와 이영교, 1987). 최근의 연구 추세는 가정의 구조적 결손보다는 기능적 결손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윤경(2008)의 정의를 참고하여 기능적 결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부재로 인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있으며,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람직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에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추영미, 2005)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형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박순영, 2008). 따라서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이 어렵다는 연구들이 많다. 즉 모자가정에서 성장한 남자는 일반적으로 지배성과 적응력, 자기억제 능력이 부족하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Berk, 2003; 박정옥, 2003; 안민주, 2004).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전체적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애재, 2000; 오승환, 2001). 또한 가족의 기능적 요인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정적 양육 경험 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와 이숙현, 2000).

기능적 결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기능적 결손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화와 김정연, 1998; 백지숙, 2000; 권대회, 2003; 신효식과 김근화, 2004; 김희, 2004; 서영미, 2004; 윤연정, 2007; 박미자, 2005; 손광민, 2009). 또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자녀의 우울과 분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정연, 2005; 박현숙, 2005).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비교 연구한 석소현과 신성희의 연구(2010)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재와 같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자아존중감과 모두 순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두 집단 모두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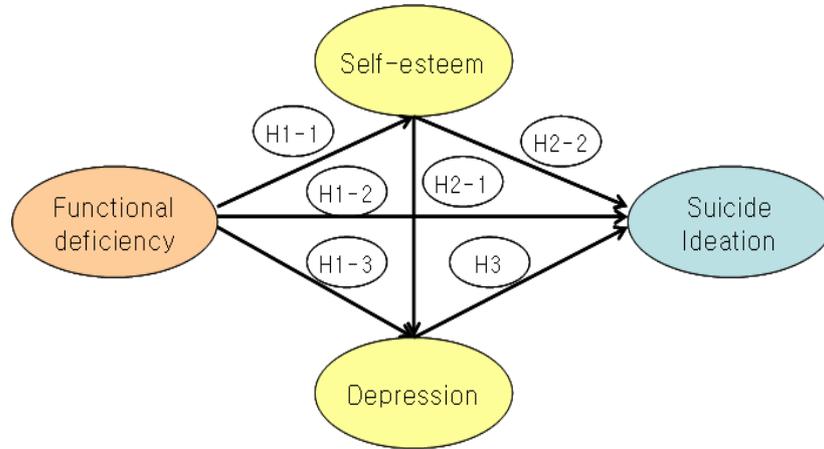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와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간에는 구조적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한 후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6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독립변수인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우울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요인이 최종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이며, 설정된 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 것



[그림 1] 연구모형.

이다.

가설 2-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

가설 2-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을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대상 청소년이다. 청소년패널자료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횡단면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변화만을 계산할 수 있지만, 패널자료가 있으면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제주도 제외) 중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단 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전국 3,449명을 1차년도(2003)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차년도(2004)부터 6차년도(2008)까지는 1차년도에 선정된 청소년을 추적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종단적 조사모형으로 동일 표본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다중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에 우울, 자살생각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시점 고1, 고2, 고3 학생의 자료인 2005, 2006, 2007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3,4,5차년도 청소년 패널(N=3,449명)자료를 사용하였다.

3. 변수정의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변수정의 및 조사도구 설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변수와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조사도구의 경우 다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위해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조사도구 개발을 통해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

1)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부모와의 관계 등 친밀감을 보았는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이며, 모든 질문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의 정도가 높으며 가정의 기능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경우 5점 척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역)' 등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우울

우울은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로울 때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함을 의미한다.

4)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자살생각 수준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나는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로 결정되었다. 이 질문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첫째, 측정도구의 기술통계량과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추정에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 .70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 연구도 이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5점 만점에 3.468점으로 높게 나타

났다. 기능적 결손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 .890$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3.35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 .758$ 로 나타났다. 우울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5점 만점에 2.750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 .817$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살생각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5점 만점에 2.148점으로 나타났다(표 2).

둘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이론변수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변수로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 6문항, 자아존중감 6문항, 우울 5문항, 자살생각 1문항이다. 분석을 위한 모든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은 AMOS/WIN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변수별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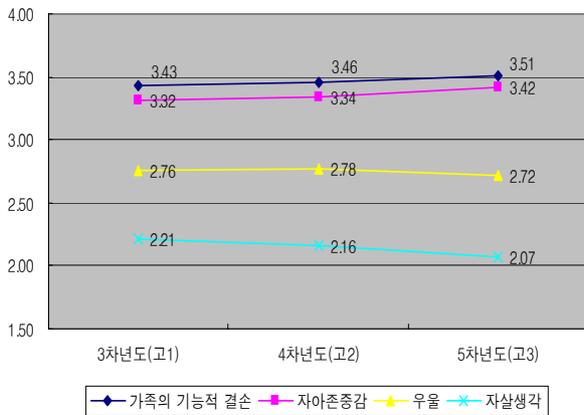
분석대상 청소년의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 자아존중감,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의 3개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기능적 결손의 평균은 3차년도(고 1)에 3.43점에서 4차년도(3.46점), 5차년도(3.51점)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도 마찬가지로 4차년도(3.32점), 5차년도(3.34점), 6차년도(3.42점)으로 증가하였다.

<표 1>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 세부문항

변수	세부분항	척도	문항수
가족의 기능적 결손	가정과 부모님에 관한 문항 (부모애착)	5점	6문항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감, 부정적 자아감)	5점	6문항
우울	우울의 정도	5점	5문항
자살생각	자살생각의 정도	5점	1문항

<표 2> 변수항목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구분	최소값	최대값	M±SD	신뢰도
기능적 결손	1.000	5.000	3.468±0.749	0.890
자아존중감	1.000	5.000	3.358±0.612	0.758
우울	1.000	5.000	2.750±0.789	0.817
자살생각	1.000	5.000	2.148±1.052	-



[그림 2] 가족의 기능적 결손,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의 변화.

우울의 경우 4차년도(2.78점)로 가장 높았고, 5차년도(2.72점)에 감소하였다. 자살생각의 경우 3차년도(2.21점)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을 통해 연차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기능적 결손의 경우 5차년도(고 3)의 평균이 3.51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자아존중감 또한 5차년도(고 3)의 평균이 3.422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우울은 4차년도(고2)의 평균이 2.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경우 3차년도(고1)의 평균이 2.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5$ or $p < .01$) (표 3).

2.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정

1)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 검정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chi^2=289.919$, $df=131$, $p < .001$, $NFI=0.940$, $RFI=0.922$, $IFI=0.941$, $CFI=0.941$, $TLI=0.923$ 의 값을 갖는 그림 3과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 구조모형 검정결과 NFI, RFI 등 적합도 평가지수들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준¹⁾에 부합하는 값을 가짐으로써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측정변수들에 의해 이론변수가 설명되어지는 비중을 나타내는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의 값이 자아존중감(self-esteem)=0.199, 우울(Depression)=0.252, 자살생각(suicide ideation)=0.743로 나타났다. 즉 이론변수의 다중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모형 내에 설명력이 높은 측정변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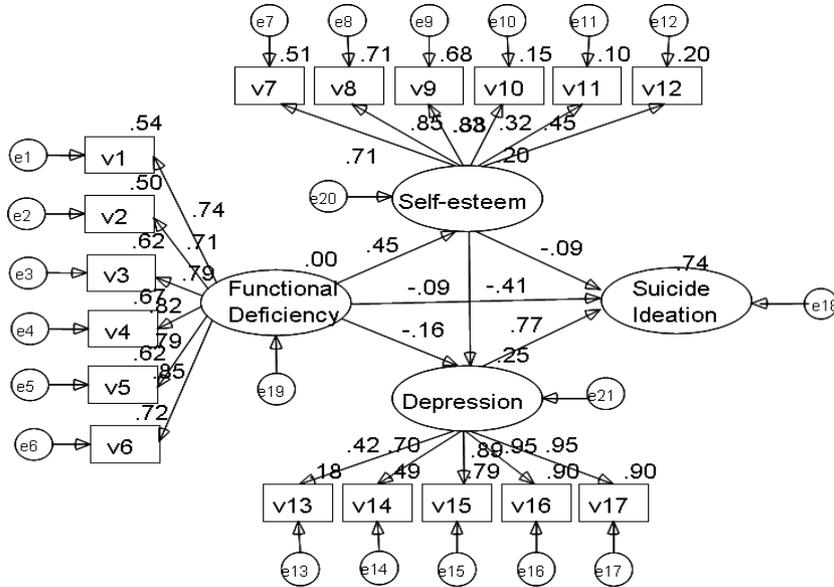
2) 연구가설의 검정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도출된 각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됨을 의미함)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1을 검정한 결과,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될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44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가설 1-2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다. 가설 2를 검정한 결과,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 =-0.0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01$).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3을 검정한 결

<표 3> 측정변수별 연도별 변화 추이

구분	3차년도 (고1)	4차년도 (고2)	5차년도 (고3)	F	p
	M±SD	M±SD	M±SD		
갓고의 기능적 결손	3.434±0.726	3.458±0.751	3.514±0.769	9.088	< .001
자아존중감	3.319±0.605	3.337±0.612	3.422±0.616	24.313	< .001
우울	2.756±0.781	2.775±0.785	2.718±0.802	4.167	.016
자살생각	2.209±1.065	2.158±1.062	2.072±1.024	13.090	< .001

1) 일반적으로 NFI (Normed Fit Index=0.9 이상), RFI (Relative Fit Index=0.9 이상, IFI (Incremental Fit Index=0.9 이상), CFI (Comparative Fit Index=0.9 이상), TLI (Tucker-Lewis Index=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됨



주) v1~v6: 가족의 기능적 결손 단일문항, v7~v12: 자아존중감 단일문항, v13~v17: 우울 단일문항; 모형적합도 지수: $\chi^2=289.919$, $df=131$, $p\text{-value}=0.000$, $NFI=0.940$, $RFI=0.922$, $IFI=0.941$, $CFI=0.941$, $TLI=0.923$; 다중상관계수 (SMC): 자아존중감 (Self-esteem)=0.199, 우울 (Depression)=0.252, 자살생각 (Suicide ideation)=0.743.

[그림 3] 가족의 기능적 결손,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과 경로계수 값은 -0.164, Critical ratio 값은 -8.320($p < .001$)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2-1을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407, Critical ratio 값은 -16.762($p < .001$)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이다. 가설 2-2를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093($p < .001$)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을 검정한 결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77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따라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3) 변수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direct effects), 간접효과(indirect effects), 그리고 전체

효과(total effects)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제시된 직접효과(경로계수 값)와 함께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82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까지 포함하여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우울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0.346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살생각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은 -0.309, 자아존중감은 -0.315로 나타나, 이를 포함한 전체효과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0.403, 자아존중감이 -0.408로 각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잠재변수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 1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자아존중감→자살생각(0.446* \cdot -0.093=0.041). 경로 1은 가족의 기능적결손이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떨어지고(0.44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은(-0.093) 결과를 보이는 과정을 나타낸다. 경로 2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자아존중감→우울→자살생각(0.446* \cdot -0.407* \cdot 0.774=0.147). 경로 2는 가족의 기능적결손이 자아존중감

<표 4> 구조방정식모형 결과에 따른 가설검정

경로 및 방향		표준화경로계수	비표준화경로계수	SE	CR	p
자아존중감	← 기능적 결손	0.446	0.408	0.015	27.708	< .001
자살생각	← 기능적 결손	-0.094	-0.326	0.033	-9.759	< .001
우울	← 기능적 결손	-0.164	-0.092	0.011	-8.320	< .001
우울	← 자아존중감	-0.407	-0.248	0.015	-16.762	< .001
자살생각	← 자아존중감	-0.093	-0.355	0.041	-8.615	< .001
자살생각	← 우울	0.774	4.838	0.186	26.050	< .001
v1	← 기능적 결손	0.735	1.000			
v2	← 기능적 결손	0.707	0.896	0.014	62.170	< .001
v3	← 기능적 결손	0.786	1.071	0.016	68.722	< .001
v4	← 기능적 결손	0.817	1.251	0.018	70.366	< .001
v5	← 기능적 결손	0.787	1.227	0.018	67.274	< .001
v6	← 기능적 결손	0.849	1.195	0.016	73.865	< .001
v7	← 자아존중감	0.713	1.000			
v8	← 자아존중감	0.845	1.248	0.020	62.920	< .001
v9	← 자아존중감	0.827	1.180	0.019	60.555	< .001
v10	← 자아존중감	0.385	0.613	0.022	28.120	< .001
v11	← 자아존중감	0.318	0.506	0.022	23.380	< .001
v12	← 자아존중감	0.448	0.705	0.022	32.728	< .001
v13	← 우울	0.420	1.000			
v14	← 우울	0.696	2.212	0.089	24.751	< .001
v15	← 우울	0.888	3.445	0.130	26.577	< .001
v16	← 우울	0.950	3.946	0.147	26.871	< .001
v17	← 우울	0.951	4.002	0.149	26.894	< .001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0.446),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음(-)의 영향을 주고(-0.407), 그리고 우울이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0.774)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경로 3 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우울→자살생각(-0.164* 0.774= 0.127). 경로 4 은 가족의 기능적결손이 높을수록 우울은 심해지고(-0.164),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은 높은(0.774) 결과를 보이는 과정을 나타낸다.

고 찰

본 연구에서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수간

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고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기능적 결손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면 평균이 5점 만점에 3.46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이 3.358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50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148점이었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될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44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청소년

<표 5> 변수들의 직접(Direct), 간접(Indirect), 전체효과(Total Effects)

변수구분			경로계수 (parameter estimate)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기능적 결손	→	자아존중감	0.446	-	0.446
기능적 결손	→	우울	-0.164	-0.182	-0.346
자아존중감	→	우울	-0.407	-	0.407
기능적 결손	→	자살생각	-0.094	-0.309	-0.403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	-0.093	-0.315	-0.408
우울	→	자살생각	0.774	-	0.774

¹⁾ 전체효과 (total effects)=직접효과 (direct effects)+간접효과 (indirect effects).

년의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손 가정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안민주(2004), 박미자(2004), 강상희(2001)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연순(1994)은 정상가정 아동보다 결손가정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아주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 환경가운데서도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즉 가족의 응집력이나 가족 간 관계 애착(attachment)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0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16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인데, 김태준(1992)은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그의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Strang과 Iofsky (1990)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unstable attachment)이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전용철, 1992 재인용),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즉, 부모의 냉랭함, 거부적인 태도, 필요시 민감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태도 등 모두 청소년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right, 1985). Strivers (1988)는 부모-자녀 간에 대화가 많을수록 자살의 선행요인인 우울증이 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자

녀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려 자살이라는 치명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모와의 낮은 유대관계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적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전영주, 2001; Ayyash-abdo, 2002).

넷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ath coefficients=-0.407),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다(path coefficients=-0.093). 끝으로,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도 높은 것으로(path coefficients=0.774)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매우 관련이 높고, 자아존중감은 장래 우울 증상을 예견할 수 있는 강한 예측변수로 보고되고 있다(Kernis, 2005; 최인재, 2010). 다음으로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Greening & Stoppelbein, 2002). 이미리(2005) 역시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연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며, 우울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Cole & Mcpherson (199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부모의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환경이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과 관련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증이 지속될수록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어떤 구조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 2006, 2007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3,4,5차년도 청소년 패널(N=3,449명)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이론변수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모든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은 AMOS/WIN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될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자살생각과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우울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볼 때, 가족의 기능강화, 즉 부모와의 친밀감, 안정적인 관계 형성 및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 청소년 개인의 바람직한 자아존중감 형성과 우울과 같은 심리·정신적 문제와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개인의 성숙과 심리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가족 간의 애착과 친밀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는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이나 관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과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치료가 기능적 결손을 지닌 청소년 가정에 필요하다. 또한 기능적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협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청소년이 문제 상황에 직면

하지 않도록 가족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중재요인으로 개인적인 요인(자아존중감, 대인관계기술), 가정적 요인(가족지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갈등수준), 사회·환경적 요인(친구관계, 교사지지, 거주환경의 위험요소) 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조미숙, 2002)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이 기능적으로 결손이 있다할지라도 외부적 지지체계 등에 의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 강화에 대한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하겠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발달되더라도 인간관계를 통해 변화되고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인숙, 2005). 학교보건이 가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족의 기능적 결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을 학교보건의 대상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한다면 좀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구축된 설문문항과 자료들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 적합한 변수구성에 있어서의 탄력적인 문항분석과 적용에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의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차후에는 가정의 구조기능간의 상호작용이나 매개관계를 고려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국단위로 수집된 3년간 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냄으로써 향후 결손가정에 대한 청소년 지도 및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상희(2001). **초등학교 결손가정아동과 정상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건강행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고기평(2009). **가정의 형태와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고성혜, 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 60-73.
- 국기연(2010). **청소년에게 아버지 있는 가정이 필요**. 세계일보.

2010. 6. 21.
- 권대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권정연(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정서 상태와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 희(2004). **중학생의 결손가정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
- 김광수, 김영진(2006).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과학논총**, 7, 1-29.
- 김영모, 이용교(1987).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복지정책의 기본구상. **사회정책연구**, 9, 19-23.
- 김태준(1992).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 적응요인 및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춘천.
- 김희화, 김정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박미자(2004).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 관련 태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 박순영(2008). **시절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인숙(2005). **집단미술치료가 복지시설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정옥(2003).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 박현숙(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심리적 부작용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박효정(2007). **기능적 결손가정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백지숙(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7-137.
- 서영미(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성,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석소현, 신성희(2010).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40(3), 367-377.
- 손광민(2009).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남.
- 신효식, 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학회지**, 7(2), 47-58.
- 안민주(2004). **결손가정아동과 정상가정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양영순(1994).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 특성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윤연정(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미리(200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빈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263-293.
- 이에재(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학연구**, 7(1), 69-93.
- 이창한, 강민완(2010).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2(1), 175-200.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전영주, 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전용철(1992). **중고등학생의 욕구수준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북.
- 조미숙(2002).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을 위한 중재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3(3), 131-165.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최인재(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 추영미(2005).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2011. 4. 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 홍윤경(2008).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39(4), 459-475.
- Berk, L. B. (2003). *Child Development*. New York: Allyn & Bacon.
- Cole, D. A., & Mcpherson, A. E. (1993). Relation of family subsystems to adolescent depression: Implementing a new family assessment strateg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9-135.
- Greening, L., & Stoppelbein, L. (2002). Religiosity, attributional style and social support as psychosocial buffers fo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perceived risk for suicide.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2(4), 404-417.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569-1609.
- Strivers, C. (198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proneness. *Adolescence*, 23, 291-295
- Wright, L. S. (1985). Suicidal thoughts and their relationship to family stress and personal problems among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undergraduates. *Adolescence*, 20, 575-580.